

무용전공 중국 유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유학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 김규진, ** 정유진, *** 김형남, **** 김혜정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분석결과
	IV. 논의
	V. 결론
	참고문헌

* 단국대학교 무용과 강사

*** 교신저자 : 세종대학교 무용과 교수

논문투고일 : 2022.07.30.

** 단국대학교 무용과 초빙교수

**** 교신저자 : 단국대학교 무용과 교수

논문심사일 : 2022.08.09.

게재확정일 : 2022.09.04.

Th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satisfaction with international students in China majoring in dance and the effect of communication control

Kim, Gyu-jin · Dankook university, Jeong, Yoo-Jin · Dankook university,
Kim, Hyoung-nam · Sejong university, Kim, Hye-jung · Danko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Chinese students majoring in dance on the satisfaction of studying abroad and to verify the regulatory effect of two-way communication. The Naver Office questionnaire program was used to collect data for two weeks from March 13 to March 28, 2022 for 330 Chinese students majoring in dance at universities nationwide. The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regulatory effect analysis using the SPSS 18.0 statistical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a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s self-efficacy, hope, and resilience had a static (+) effect on satisfaction with study abroad, satisfaction with school services, and satisfaction with friends. It suggested the development of a dance education system using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the creation of a university and department-level system for two-way communication.

〈key word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tudying abroad life satisfaction, two-way communication, Chinese student, dance

〈주요어〉 긍정심리자본, 유학생생활만족, 쌍방향 의사소통, 중국유학생, 무용

한국교육개발원(2021)에 따르면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15만 명을 넘어 서며 국내 교육과 문화의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국인 유학생 수는 44.2%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2022년 현재 외국인 유학생 수가 6년 만에 처음으로 80%가량 급감하여 각 대학의 재정적 측면에 큰 타격을 주었다(한국대학신문, 2022). 이는 팬데믹 이후 학교에 대한 부정적 반응, 교수자·학생 간 소통의 단절,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부정적 심리 등이 큰 이유(이지은, 주성희, 2022)로 지적된다. 이에 유학생의 유학 만족도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상호 간의 소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예술 교육 중, 신체를 매개로 하는 무용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입국금지, 비대면 강의 등 활동성 저하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무용 전공 중국 유학생의 유학생생활만족도를 높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유학생생활만족도는 유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정서적 느낌과 견해, 학생들이 교과활동, 특별활동, 기타행사, 교우관계 등에서 자기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장준용, 2015). 유학의 개념과 생활만족도 개념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유학의 개념은 다른 나라에서 교육기회를 추구하는 학생들의 활동을 뜻하고 생활만족도의 개념은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자신의 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긍정적인 감정상태라고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유학생생활만족도는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구분되는데 구체적으로 학습만족, 학교서비스만족, 교우만족, 3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되어 있다(왕양, 2008; 유병부, 주혜영, 2011; ZHANG SHUXIN, 2019).

최근 중국 유학생들의 유학생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가활동참여(김위, 하숙레, 2018), 셀프리더십(왕지윤, 이지안, 2020), 문화적응 스트레스(이수진, 이지은, 2021), 예술치료(위시현, 김나경, 2020) 등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긍정적 효과성을 나타내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만족도(유지현, 김혜영, 2022)가 좀처럼 호전되지 않아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때 국내 대학생들의 코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감소(강지연, 지명원, 2021)시키고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지명원, 이주연, 2022)와 적응력(신현희, 장수현, 2022)을 높여주기 위해 활용하여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는 긍정심

리자본을 활용한다면 무용 전공 중국 유학생의 유학생생활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긍정심리자본은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김권수, 이금희, 2021; 여열, 조형숙, 2020)되어 오고 있으나 무용 전공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긍정심리자본은 인간의 잠재력과 강점을 통하여 개인의 삶 혹은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긍정심리학과 긍정적 조직행동으로부터 제안된 개념이다(박지윤, 2017). 이러한 긍정심리자본은 자본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개인의 경험이나 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과 기술 등이 인적자원(human resource) 혹은 인적자본(human capital)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대학 교육에서 교수자는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관리 및 안내가 어려운데, 이때 학습자가 스스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학습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긍정심리자본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강진, 2021; 박지영, 이희수, 2019; 성소연, 김은영, 2021)들이 나타나고 있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 4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뜻하고, 희망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지와 경로를 갖는 것이며, 낙관주의는 긍정적인 사건을 내부적, 영구적, 확대적 요인에 귀인하는 설명양식이고, 복원력은 역경이나 실패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Luthans, F. & Youssef, C. M. 2004; 박지윤, 2017). 이에 무용 전공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의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이 유학생생활만족의 학습만족, 학교서비스만족, 교우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대학 역시 전면 강의로 전환된 현 시점이지만 지난 3년간은 교강사 또는 학생들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김규진(2020)의 연구에서 활용된 교수자와 의사소통, 학습자 간 의사소통의 두 가지 요인을 말하는 쌍방향 의사소통을 조절변수로 활용한다면 무용 전공 중국 유학생들의 긍정적 심리와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유학생생활만족에 더욱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무용 전공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의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유학생 생활만족의 학습만족, 학교서비스만족, 교우만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각 변인 간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고 쌍방향 의사소통의 교수자와 의사소통, 학습자 간 의사소

통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무용 전공 중국 유학생들의 유학생생활만족도를 높이고 국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 연구모형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무용 전공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과 유학생생활만족의 관계에서 쌍방향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다음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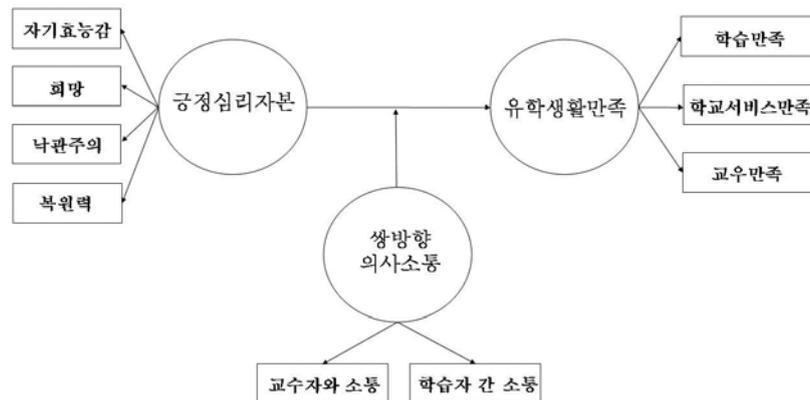


그림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무용 전공 중국 유학생 330명으로 설정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93명, 여성이 237명, 학년은 1학년 59명, 2학년 78명, 3학년 103명, 4학년 90명으로 나타났다. 전공은 현대무용 130명, 발레 92명, 한국무용 108명, 경력은 1~3년 63명, 4~6년 113명, 7~10년 82명, 11년 이상 72명으로 나타났고 한국어 수준은 1급 116명, 2급 48명, 3급 52명, 4급 61명, 5급 26명, 6급 27명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자	93	28.2
	여 자	237	71.8
학년	1학년	59	17.9
	2학년	78	23.6
	3학년	103	31.2
	4학년	90	27.3
전공	현대무용	130	39.4
	발레	92	27.9
	한국무용	108	32.7
경력	1~3년	63	19.1
	4~6년	113	34.2
	7~10년	82	24.8
	11년 이상	72	21.8
한국어 수준	1급	116	35.2
	2급	48	14.5
	3급	52	15.8
	4급	61	18.5
	5급	26	7.9
	6급	27	8.2
합계		330	100

3. 측정도구

선행연구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설정된 연구모형을 토대로 각 변인들을 측정 하였으며 인구통계 5문항, 긍정심리자본 17문항, 유학생생활만족 14문항, 쌍방향 의사소통 4문항, 총 40문항 구성하였다. 이를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5점 '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보통', 2점 '그렇지 않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사용하였으며 설문지의 구성요소는 <표 2>, 구성요소별 대표 문항은 <표 3>과 같다.

표 2. 설문지의 구성요소 및 문항수

구성	하위변인	문항수
인구통계	성별, 학년, 전공, 경력, 한국어수준	4
긍정심리자본	자기효능감	5
	희망	5
	낙관주의	3
	복원력	4
유학생활만족	학습만족	5
	학교서비스만족	5
	교우만족	4
쌍방향 의사소통	교수자와 의사소통	2
	학습자 간 의사소통	2
총계		40

표 3. 설문지의 구성요소별 대표문항

구성	대표 문항	
긍정심리자본	자기효능감	나의 미래는 내가 결정하고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희망	나의 목표가 언젠가는 꼭 달성되리라 생각한다.
	낙관주의	나에게는 힘든 일보다 즐거운 일이 더 많이 생기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복원력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 침착하게 그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다.
유학생활만족	학습만족	나는 학교의 교육내용에 매우 만족한다.
	학교서비스만족	나는 학교 행정 서비스에 만족한다.
	교우만족	나와 우리 학교의 한국 학생들 사이에는 밀접한 우호 관계가 형성되어있다.
쌍방향 의사소통	교수자와 의사소통	나와 교수 간의 의사소통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학습자 간 의사소통	나와 다른 학생 간의 의사소통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1)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의 측정도구는 Luthans, K. W. & Luthans, B. C.(2004)가 개발하고 류다현(2015), 박지윤(2017), 양필석, 최석봉(2012), 유지원, 강명희(2014), 유현숙(2004)이 사용한 설문지를 전문가(무용과 교수 1인, 무용과 강사 1인)와 함께 수정·보완하였으며, 자기효능감 5문항, 희망 5문항, 낙관주의 3문항, 복원력 4문항, 총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유학생활만족

유학생활만족의 측정도구는 유병부, 주혜영(2011), ZHANG SHUZIN(2019)

이 사용한 설문지를 전문가(무용과 교수 1인, 무용과 강사 1인)와 함께 수정·보완하였으며, 학습만족 5문항, 학교서비스만족 5문항, 교우만족 4문항,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쌍방향 의사소통

쌍방향 의사소통의 측정도구는 김규진(2020), 원희수(2004)가 사용한 설문지를 전문가(무용과 교수 1인, 무용과 강사 1인)와 함께 수정·보완하였으며, 교수자와 의사소통 2문항, 학습자 간 의사소통 2문항,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연구대상자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무용 전공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모집단을 설정하며 비확률표본추출 방법을 활용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목적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뒤, 온라인 네이버 오피스 설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022년 3월 14일부터 3월 28일까지 약 2주간 총 330부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변수들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해 주성분, 직각회전방식(베리맥스)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크론바흐 알파)을 실시하였다. 이후 변수계산과 평균중심화 과정을 거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형성하였고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의 분석과정을 거쳐 1단계를 유의하게 통과한 변수들을 대상으로 R제곱 변화량을 검증하였다.

5.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긍정심리자본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통성이 낮은(0.5이하) 자기효능감(1번)과 회전된 성분행렬에서 묶이지 않는 낙관주의를 통으로 제거하였다. 이후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재실시하여 공통성 .539~.682, 신뢰도 .753~.787로 나타나 기준치를 충족시켰다. 유학생생활만족은 학습만족(1, 2, 3번), 교우만족(1, 2번), 학교서비스만족(1, 2, 4번)을 제거하였고 공통성 .578~.771, 신뢰도 .620~.711로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쌍방향 의사소통은 제거된 요인이 없었으며 공통성 .708~.762, 신뢰도 .635~.665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 <표 4, 5, 6>과 같다.

표 4. 긍정심리자본 요인분석 및 신뢰도(KMO:0.916)

요인	공통성	적재치	고유값	분산 %	신뢰도
희망2	.598	.692	5.539	42.605	.787
희망5	.546	.677			
희망4	.545	.669			
희망3	.560	.657			
희망1	.593	.623			
복원력4	.571	.683	1.095	8.423	.753
복원력1	.557	.678			
복원력2	.568	.657			
복원력3	.539	.649			
자기효능감4	.682	.795	.884	6.802	.783
자기효능감5	.613	.716			
자기효능감3	.589	.648			
자기효능감2	.555	.587			

표 5. 유학생활만족 요인분석 및 신뢰도(KMO:0.791)

요인	공통성	적재치	고유값	분산 %	신뢰도
학습만족2	.771	.858	3.025	43.215	.702
학습만족1	.645	.725			
학습만족3	.578	.666			
교우만족1	.733	.852	1.053	15.048	.711
교우만족2	.770	.841			
학교서비스만족5	.759	.851	.865	12.363	.620
학교서비스만족3	.647	.728			

표 6. 쌍방향 의사소통 요인분석 및 신뢰도(KMO:0.742)

요인	공통성	적재치	고유값	분산 %	신뢰도
교수자와 의사소통2	.752	.838	2.265	56.629	.665
교수자와 의사소통1	.745	.826			
학습자 간 의사소통2	.762	.851	.701	17.525	.635
학습자 간 의사소통1	.708	.794			

1. 다중회귀 분석

무용 전공 중국 유학생들의 긍정심리자본이 유학생생활만족의 하위변인인 학습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단계선택(stepwise)을 선택하였다. 분석결과, $F=71.799(p<.001)$ 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다중공선성을 알 수 있는 더빈왓슨은 기준치가 2.0 값에 가깝게 나타나(2.134) 변수 간 독립성이 확보되었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변인인 자기효능감($p=.000$), 희망($p=.003$), 복원력($p=.000$), 3개의 변인 모두 학습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다중회귀분석 결과(긍정심리자본→학습만족)

변수	B	S.E	β	t	p	공차	VIF
상수	.941	.207	-	4.550	.000	-	-
자기효능감	.269	.059	.266	4.589***	.000	.550	1.818
희망	.190	.064	.173	2.943**	.003	.534	1.873
복원력	.360	.065	.289	4.745***	.000	.499	2.006

* $P<.05$, ** $P<.01$, *** $P<.001$ / F : 71.799*** / 더빈왓슨 : 2.134

다음은 긍정심리자본이 유학생생활만족의 하위변인인 학교서비스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단계선택(stepwise)을 선택하였다. 분석결과, $F=53.860(p<.001)$ 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다중공선성을 알 수 있는 더빈왓슨은 기준치가 2.0 값에 가깝게 나타나(1.804) 변수 간 독립성이 확보되었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변인인 자기효능감($p=.002$), 희망($p=.000$), 복원력($p=.000$), 3개의 변인 모두 학교서비스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다중회귀분석 결과(긍정심리자본→학교서비스만족)

변수	B	S.E	β	t	p	공차	VIF
상수	.923	.229	-	4.026	.000	-	-
자기효능감	.204	.065	.191	3.133**	.002	.550	1.818
희망	.281	.071	.244	3.939***	.000	.534	1.873
복원력	.258	.072	.231	3.598***	.000	.499	2.006

* $P<.05$, ** $P<.01$, *** $P<.001$ / F : 53.860*** / 더빈왓슨 : 1.804

다음은 긍정심리자본이 유학생생활만족의 하위변인인 교우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단계 선택(stepwise)을 선택하였다. 분석결과, $F=41.791(p<.001)$ 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다중공선성을 알 수 있는 더빈왓슨은 기준치가 2.0 값에 가깝게 나타나(1.922) 변수 간 독립성이 확보되었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변인인 자기효능감($p=.008$), 희망($p=.000$), 복원력($p=.004$), 3개의 변인 모두 교우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9>과 같다.

표 9. 다중회귀분석 결과(긍정심리자본→교우만족)

변수	B	S.E	β	t	p	공차	VIF
상수	.870	.260	-	3.349	.001	-	-
자기효능감	.197	.074	.170	2.671**	.008	.550	1.818
희망	.309	.081	.245	3.805***	.000	.534	1.873
복원력	.237	.081	.195	2.921**	.004	.499	2.006

* $p<.05$, ** $p<.01$, *** $p<.001$ / F : 41.791 *** / 더빈왓슨 : 1.922

2. 조절효과분석

긍정심리자본의 하위변인인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과 유학생생활만족의 하위변인인 학습만족, 학교서비스만족, 교우만족의 관계에서 쌍방향 의사소통의 하위변인인 교수자와 의사소통, 학습자 간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알아보았다. 1단계 회귀분석(독립→종속)의 유의성을 통과한 변수를 2단계(조절→종속)와 3단계(독립x조절→종속)에서 나타난 R제곱 변화량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과 학습만족, 학교서비스만족, 교우만족의 관계에서 교수자와 의사소통, 학습자간 의사소통은 모두 2단계까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3단계 상호작용 변수에서 탈락하여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과 학습만족의 관계에서 교수자와 의사소통은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정적(+)으로 작용하였고 학습자 간 의사소통은 2단계까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3단계에서 탈락하여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희망과 학교서비스만족의 관계에서 교수자와 의사소통, 학습자 간 의사소통 모두 2단계까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3단계에서 탈락하여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희망과 교우만족의 관계에서는 교수자와 의사소통, 학습자간 의사소통 두 변수 모두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복원력과 학습만족, 학교서비스만족의 관계에서 교수자와 의사소통, 학습자 간 의사소통은 2단계까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3단계에서 탈락하여 조절효과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복원력과 교우만족의 관계에서 교수자와 의사소통은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정적(+)으로 작용하였고 학습자 간 의사소통은 2단계까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3단계에서 탈락하여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는 ‘희망과 학습만족의 관계에서 교수자와 의사소통’, ‘희망과 교우만족의 관계에서 교수자와 의사소통’, ‘희망과 교우만족의 관계에서 학습자 간 의사소통’, ‘복원력과 교우만족의 관계에서 교수자와 의사소통’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정적(+)으로 작용하였고 채택된 변수의 결과는 다음 <표 10, 11, 12, 13>과 같다.

표 10. 교수자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독립변수:희망 / 종속변수:학습만족)

독립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β	t	β	t	β	t
희망(독립)	.514	10.845***	.312	6.041***	.338	6.435***
교수자와 의사소통 (조절)	-		.363	7.426***	.396	7.682***
희망(독립) x 교수자와 의사소통 (조절)	-		-		.106	2.290*
F	117.617		96.093		66.641	
R^2	.264		.370		.380	
change R^2	.262		.366		.374	

표 11. 교수자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독립변수:희망 / 종속변수:교우만족)

독립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β	t	β	t	β	t
희망(독립)	.469	9.620***	.387	6.812***	.425	7.386***
교수자와 의사소통 (조절)	-		.156	2.749**	.175	3.097**
희망(독립) x 교수자와 의사소통 (조절)	-		-		.152	3.000**
F	92.544		50.977		37.817	
R^2	.220		.238		.258	
change R^2	.218		.233		.251	

표 12. 학습자 간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독립변수:희망 / 종속변수:교우만족)

독립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β	t	β	t	β	t
희망(독립)	.469	9.620***	.342	6.177***	.369	6.527***
학습자 간 의사소통 (조절)	-		.245	4.415***	.247	4.477***
희망(독립) x 학습자 의사소통(조절)	-		-		.104	.035*
F	92.544		58.628		41.005	
R^2	.220		.264		.274	
change R^2	.218		.259		.267	

표 13. 교수자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독립변수:복원력 / 종속변수:교우만족)

독립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β	t	β	t	β	t
복원력(독립)	.457	9.302***	.370	6.518***	.385	7.666***
교수자와 의사소통 (조절)	-		.169	2.975**	.188	3.287**
복원력(독립) x 교수자와 의사소통 (조절)	-		-		.109	2.162*
F	86.533		48.728		34.409	
R^2	.209		.230		.240	
change R^2	.206		.225		.234	

본 연구는 무용 전공 중국 유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유학생생활만족에 영향을 끼치고 쌍방향 의사소통이 조절변수로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긍정심리자본의 하위변인인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이 유학생생활만족의 학습만족, 학교서비스만족, 교우만족에 끼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긍정심리자본의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이 유학생생활만족의 학습만족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심리자본의 자기효능감, 희망이 수업만족과 학업성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한 최우재

(201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긍정심리자본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에서 수업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되었고(박우석, 2013), 박종화(2016)의 연구에서도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수업의 재미요인을 높여 학습에 몰입하게 되고 이러한 몰입은 학습만족도를 높여준다고 발표된 바 있다. 더불어 긍정심리자본은 대학생의 학업생활 중 전공만족(지명원, 이주연, 2022)에도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생활무용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긍정심리자본의 자기효능감, 희망, 회복탄력성이 무용수업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도 존재한다(윤상문, 최동순, 백성익, 2019). 결국 긍정심리자본이 무용수업 참여자는 물론 일반 대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을 감안한다면 무용 전공 중국 유학생들에게 정적으로 작용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긍정심리자본을 통해 긍정적인 강점을 활용함으로써 진취적 사고와 행동을 하여 작업 또는 학업에서도 만족도를 높이고 성과(송정명, 유동현, 2018)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무용 전공 중국 유학생들의 학습만족을 위해 꼭 필요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둘째, 긍정심리자본의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이 유학생생활만족의 학교서비스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심리자본의 자기효능감, 복원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전반의 영역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한 심은영(201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긍정심리자본이 높을 때 학교생활의 적응력이 높아지는데(장정임, 김성봉, 2015) 이러한 적응력 향상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 시설, 교보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므로 학교서비스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요인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무용 전공 중국 유학생의 경우 언어 소통의 한계와 타국에서 왔다는 심리적 부담감 등의 이유로 학교에서 적극성이 다소 낮은 수준일 것이다. 이에 긍정적 생각과 행동을 통해 적극성이 높아진다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활용도가 높아져 학교서비스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김권수, 이금희(2021)의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의 자기효능감, 희망은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기에 앞서 밝힌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다. 결국 무용 전공 중국 유학생들의 긍정심리자본을 높여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긍정심리자본의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이 유학생생활만족의 교우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심리자본의 자기효능감과 복원력이 교우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한 조운서(2019)의 연구, 자기효능감이 학교에서 부적응을 예방해주기에 학생들 간의 관계는 물론 학교생활 전반에 만족도를 높여준다고 발표한 Schunk, D. H.(1984)와 Bandura, A.(1997)의 연

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무용 전공 중국 유학생의 경우 국내 대학의 교육과 교류증진을 통해 문화를 체험하고 학위취득을 위해 유학을 오게 된다. 이때 긍정심리자본의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이 다양한 분야의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여준다는 연구(이재연, 2014; 정연우, 2011; 정윤정, 임선아, 2013; 최윤정, 2016; 황정민, 2015)들을 기반으로 살펴본다면 유학생생활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교우관계에 있어서 유학생들 간의 교류증진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나 의사소통의 제한으로 인해 국내 대학생들과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긍정심리자본의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과 유학생생활만족의 학습만족, 학교서비스만족, 교우만족의 관계에서 쌍방향 의사소통의 교수자와 의사소통, 학습자 간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희망과 학습만족의 관계에서 교수자와 의사소통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우만족의 관계에서 교수자와 의사소통, 학습자 간 의사소통 두 변인 모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원력과 교우만족의 관계에서 교수자와 의사소통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중국 유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이 학업의 적응력을 높여 만족도를 유발한다고 발표한 지상(2015), 김현숙, 강선모(201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재한 중국 유학생들에게 원활한 의사소통은 학업 상황이나 교수, 동기 선·후배와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갖게 하기에 유학생생활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수자와 학생 간,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Anaya, G. & Cole, D. G.(2001)는 미국의 대학생 83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수와 학생의 관계의 질, 학업 관련 대화, 진로상담, 공동 프로젝트 참여와 같은 상호작용을 통한 의사소통 빈도가 높을수록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했으며 Kuh, G. D. & Hu, S.(2001)의 연구에서도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대학생의 전반적인 교육 성과를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의사소통은 유학생들에게도 적용되지만, 국내 대학생들에게도 적용되어 연구되어오고 있다(나길주, 나은하, 2019; 박습, 2022; 이현주, 2021). 또한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긍정심리자본과 상호작용을 통한 의사소통, 각 기관에서의 만족도의 관계성을 규명한 연구들(백란, 복진영, 이옥희, 이재창, 2022; 정이화, 2019)이 최근에도 꾸준히 연구되며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에 본 연구의 대상인 무용 전공 중국 유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긍정심리자본을 활용하여 무용 전공 중국 유학생들의 유학생생활만족도를 높일 때 교수 또는 강사와의 의사소통과 학생들 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활용한다면 더욱 만족도 높은 유학생생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무용 전공 중국 유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유학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쌍방향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무용 전공 중국 유학생 33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긍정심리자본의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이 유학생활만족의 학습만족, 학교서비스만족, 교우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희망과 학습만족의 관계에서 교수자와 의사소통, 희망과 교우만족의 관계에서 교수자와 의사소통, 학습자 간 의사소통, 복원력과 교우만족의 관계에서 교수자와 의사소통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결과와 논의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긍정심리자본을 적용한 무용 교육시스템 개발과 인식 제고”이다. 최근 긍정심리자본을 활용한 프로그램과 척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운동선수(김은지, 허정훈, 2017), 일반대학생(조윤서, 2016), 조직구성원(전선호, 송영수, 2021), 아동(박미진, 2019), 중학생(김평중, 탁진국, 2019) 등 여러분야에서 각 대상의 정적인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다. 그러나 무용의 경우 긍정심리자본 관련 학술연구조차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긍정심리자본을 활용한 무용 전공자들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자들의 관심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여 무용 전공자들에게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은 국내 무용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먼저 효과성을 검증한 뒤, 중국 유학생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긍정심리자본을 주로 활용하는 심리학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이 필요할 것이며 대학 내 개설되어있는 무용연구소 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쌍방향 의사소통을 위한 대학·학과 차원의 제도 마련”이다. 각 대학에서는 교수와 학생 간의 상담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학생들의 심리상태와 진로인식을 위해 필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상담을 실시하는 교수자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학기당 1~2회 시행되는 상담의 경우, 다소 짧은 상담시간과 진로, 학업생활 등 정확한 목적의식에 의해 이루어지기에 심리적인 교감을 하기에는 다소 한계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교수자와 학생 간 잦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별적인 소통 장구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학교 온라인 시스템인 블랙보드, 학과 홈페이지

또는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소통장구를 확보하여 교수자와 학생 간 쌍방향 의사소통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무용 전공 중국 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여 유학생생활만족에 일정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 연구, 사회단체 활동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수자들에게는 잦은 소통이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내 무용 교육의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유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한 개별 관리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책임감을 함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학생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무용학과의 특성상 학생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공연이나 동아리 활동, 팀워크를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유학생들끼리 이루어지는 협업활동이 아닌 국내 학생들과 함께 팀을 이룰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무용 전공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의사소통이 체계화된다면 적극성을 높여 학업에 열중하게 되므로 유학생생활만족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무용 분야의 긍정심리자본 관련 선행된 연구가 미비하여 개별적인 논의에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전국에 있는 무용 전공 중국 유학생 수에 비해 330명만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일반화하는 데 무리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유학생들의 전공별 교육환경, 한국어 수준 등의 일반적 특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무용 전공 중국 유학생들의 전공을 세분화하는 등 일반적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적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긍정심리자본과 쌍방향 의사소통의 효과성을 검증한다면 일반화에 일정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대학으로 유학을 오는 외국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성장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지연, 지명원(2021), “코로나19에 따른 대면서비스직 전공 대학생의 취업불안과 우울의 관계: 긍정심리자본의 조절효과”, 한국상담심리교육복지학회, **상담심리교육복지 8(3)**, 177-191.

강진(2021),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2)**, 551-565.

김권수, 이금희(2021), “중국인 유학생-노동자들의 긍정심리자본이 직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인적자원개발연구 24(2)**, 31-62.

김규진(2020), “온라인 무용교육 서비스품질이 학습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온라인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1(4)**, 117-134.

김위, 하숙례(2018), “유학생들의 여가활동참여 및 대학생활만족과 삶의 질의 관계”, 한국스포츠헌학회, **한국스포츠헌학회지 16(2)**, 369-384.

김은지, 허정훈(2017), “운동선수 긍정심리자본 척도 개발”,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4)**, 1125-1146.

김평중, 탁진국(2019), “중학교 야구선수 대상 긍정심리기반팀 코칭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26(12)**, 147-175.

김현숙, 강선모(2013), “내현적 자기애와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20(1)**, 157-176.

류다현(2015), “자연계열 대학생의 지각된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자본, 창의성향, 학습지향성 간의 관계 규명”,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미진(2019), “아동용 긍정심리자본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7)**, 1123-1142.

박우석(2013), “교양체육을 통한 대학생들의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수업몰입 및 수업만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중화(2016), “축구클럽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만족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지영, 이희수(2019), “선취업 후진학 대학생의 학업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지지, 긍정심리자본, 학습몰입, 대학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직업교육학회, **직업교육연구 38(1)**, 1-20.

박지윤(2017),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의 학습만족 예측: 긍정심리자본과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백란, 복진영, 이옥희, 이재창(2022), “개인-조직 가치적합성이 교사의 직무만족과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과 긍정심리자본의 조절효과”, 공주대학교 KNU 기업경영연구소, **기업경영리뷰 13(2)**, 123-145.

성소연, 김은영(2021), “대학생의 문제중심 스트레스 대처전략, 긍정심리자본, 대학생활적응의

구조적 관계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2)**, 51-66.

송정명, 유동현(2018), “체육전공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에 따른 전공만족, 학습몰입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 **한국체육과학회지 27(3)**, 209-222.

신현희, 장수현(2022),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회복탄력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융합학회,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3(2)**, 321-329.

심은영(2018), “중학생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조절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양필석, 최석봉(2012), “심리적 자본이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인사관리학회,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36(1)**, 1-29.

여열, 조형숙(2020), “부모양육태도가 중국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융합학회, **문화와 융합 42(11)**, 505-540.

왕지윤, 이지안(2020),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11)**, 340-348.

원희수(2004), “온라인 상호작용성과 학습자의 자기효능 및 만족도간의 관계: 웹사이트의 보완적 활용의 관점에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시현, 김나경(2020),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예술치료 지원의 필요성 연구”, 한국융합예술치료교육학회, **예술과 인간 6**, 21-38.

유병부, 주혜영(2011), “생활품질과 교육품질이 중국 유학생의 유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Second-Order Model을 이용한 통합적 접근”,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33**, 108-110.

유지원, 강명희(2014), “대학생의 학습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수업환경과 학습자 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4)**, 309-337.

유지현, 김혜영(2022),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비대면 수업 만족도와 학생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연구 20(1)**, 122-147.

유현숙(2004), “여성의 인적·사회적·심리적 근본에 관한 실증연구: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대학원.

윤상문, 최동순, 백성익(2019), “생활무용참여자의 긍정심리자본이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무용수업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 **한국스포츠학회지 17(2)**, 565-575.

이수진, 이지은(2021),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2)**, 485-502.

이재연(2014), “중학생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학교 적응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지은, 주성희(2022), “예체능계열 석·박사 과정 중국인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한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 수도권 A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음악교육공학회, **음악교육공학 0(51)**, 43-64.

- 장정임, 김성봉(2015),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연구 23(2)**, 447-466.
- 장준용(2015), “학교스포츠클럽에 참가한 중학생의 스포츠몰입경험과 학교생활만족도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선호, 송영수(2021), “조직구성원의 긍정심리자본 개발을 위한 긍정리더십 역량 모형에 대한 탐색”,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36(6)**, 23-49.
- 정연우(2011), “가정 기능과 개인의 긍정적 특성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윤정, 임선아(2013),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의 상관관계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27(4)**, 853-873.
- 정이화(2019), “긍정심리자본이 노인요양병원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한국엔터테인먼트 산업학회논문지 13(1)**, 235-249.
- 조윤서(2016),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4)**, 529-546.
- _____(2019),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대학생활적응과 대학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1)**, 79-104.
- 지명원, 이주연(2022), “취업준비 대학생의 전공만족과 취업불안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한국상담심리교육복지학회, **상담심리교육복지 9(2)**, 183-198.
- 지상(2015), “재한중국유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최우재(2013), “긍정심리자본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청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경상논총 5(2)**, 227-238.
- 최윤정(2016), “중학생의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구조적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 황정민(2015), “중학생의 낙관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ZHANG SHUXIN(2019), “재한 중국유학생의 유학동기와 유학생활만족도 및 구직효능감 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Anaya, G. & Cole, D. G.(2001), “Latina Student Achievement: Explorin the InFLuence of Student-Faculty Interactions on College Grad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2(1), 3-14.
- Bandura, A.(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Kuh, G. D. & Hu, S. (2001), “The Effects of Student-Faculty Interaction in the 1990s”, *Review of Higher Education* 24(3), 309-332.
- Luthans, F. & Youssef, C. M.(2004), “Human, social, and now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anagement: Investing in people for competitive advantago”, *Organizational Dynamics* 33(2), 143-160.
- Luthans, F., Luthans, K. W. & Luthans, B. C.(2004),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eyond human and social capital”, *Business Horizons* 47(1), 45-50.

Schunk, D. H.(1984), “The self-efficacy Perspective on achievement behavior”, *Educational Psychologist* 19, 199-218.

한국교육개발원(2021), “교육통계서비스,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수”, https://kess.kedi.re.kr/mobile/stats/school?menuCd=0102&cd=5541&survSeq=2021&itemCode=01&menuId=m_010205&uppCd1=010205&uppCd2=010205&flag=A

한국대학신문(2022), “코로나 장기화로 외국인 유학생 뚝...교육의 질과 학생 만족도 제고 방향으로 정책 이뤄져야”, 2022.04.18.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26863>